

총장-뉴스레터 – 81 (2024-5-24) 출 35 장 1 절-40 장 38 절 (회막건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42-43)

이스라엘 민족의 시내산 회막 건립은 크게 볼 때 대략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 제 1 단계는 모세가 십계명 첫 두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사십일을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각 기구의 식양 및 제사장 복식 규제 등에 대한 계시를 중심으로 회막건립 명령을 받은 단계였다 (25-34 장). 제 2 단계는 모세가 여호와의 회막건립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라 회막건립에 소요될 물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침으로써 회막 건립을 준비했던 단계이다 (35:1-36:7). 다음 제 3 단계는 이제 준비된 물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하여 수많은 자원자들이 나서서 회막의 각종 기구들을 완성한 단계이다 (36:8-39:43). 끝으로 제 4 단계는 이동용 조립식 성소였던 회막을 최초로 조합하여 건립을 낙성하고 그 기념 봉헌식을 거행함으로써 모든 역사를 필하고 여기에 하나님 영광의 현현의 상정인 구름기둥이 임함으로써 신적 승인까지 끝났던 단계이다 (40 장) .

안식일 규제

하나님께서 회막 건립을 지시하시면서 안식일 준수를 특별히 강조하신다. 하나님의 성소 건립을 위하여 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안식일 규정은 무조건 적용된다. 성경 여러곳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과 맺은 깨질 수 없는 언약의 표징으로 이해하는데, 이 표징을 보고서 온 세상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막을 건립할 준비가 완료되어 시작하기에 앞서 두 번째로 안식일에 쉬라는 계명을 단단히 일러준다.

안식일과 하나님의 회막

성일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백성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온전한 안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계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드리는데, 이는 또한 이제 세워야 할 ‘거처’에 하나님이 계시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리하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며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될 수 있었다.

자원하여 드리는 회막건립 예물

회막을 건립하기 위한 예물을 백성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건립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대로 회막을 건립하였다.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실행하였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장황한 것 같으면서도 직접적이고 눈으로보듯이 묘사함으로써 이제 건립하는 회막이 세부적인 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남

회막이 구름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거처에 계심을 나타내신다. 그의 영광의 광채가 회막을 가득 채우고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 봉헌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이 만든 성소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시의 산인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

생각하기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놓여진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통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막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다 (고전 3: 16, 17).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회막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욱 존귀케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이다. 신약성경의 교회는 더 이상 회막과 같은 성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